

요약

최근 중국 정부는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 공유 사업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의 의료보장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플랫폼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종사자 교육 등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음.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는 과거 의료·보험 데이터, 의약품 목록, 보험 가입·청구 데이터 등을 포함하며, 이를 활용해 민간 보험회사는 사적 건강보험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대하고 있음

- 최근 중국 정부는 공적 및 사적 건강보험(이하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 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보험회사의 의료보장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 중국에서는 국가의료보장국¹⁾과 의료기관(종합병원, 지역의원 등)이 공적 건강보험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어 민간 보험회사와 국가의료보장국 및 의료기관 간의 공적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중국 민간 보험회사는 공적 건강보험 데이터 축적 부족과 의료서비스 이용 데이터 접근 제한으로 인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심사 및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공·사 건강보험 플랫폼 시스템을 연계해 민간 보험회사가 공적 의료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건강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국민이 의료기관·약국에서 원스톱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공적 의료보험 플랫폼은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에 의해 출범하였으며, 약 14억 인구의 공적 건강보험 데이터를 보유하고 중국 내 공적 건강보험 적용 대상 40만 개 의료기관과 40만 개 약국의 정산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음
 - 사적 의료보험 플랫폼은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²⁾ 산하 기관인 은행보험정보관리회사가 운영·관리하며, 민간 보험회사의 사적 건강보험 관련 데이터 축적, 업무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공적 의료보험 플랫폼 구축,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통해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 공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 민간 보험회사의 의료보장 역할 확대를 촉구하였으며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이후 2022년 5월 각 정부 부처 및 지방 관리기구에 산재한 공적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공적 의료보험 플랫폼을 구축함
 - 공적 의료보험 플랫폼은 여러 하위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축적과 조회, 지급결제, 공공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기능뿐만 아니라 보험금 누수 방지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의료비 지원 등 혁신적인 기능도 포함하고 있음

1)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국무원 산하 직속 부처이며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과 유사한 기관으로 공적 건강보험 외에도 출산보험, 의료구조를 관리함
 2)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산하 직속 부처이며,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와 유사한 기관으로 은행, 보험, 금융시장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함

- 2023년 6월 국가의료보장국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함께 “공·사 건강보험 플랫폼의 데이터 공유 협약(의견수렴안)”을 발표해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 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
 - 해당 의견수렴안에는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 공유의 기본 원칙과 목표, 데이터 공유의 범위 및 실행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24년 10월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보험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 공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국가의료보장국이 보험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10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함
- 중국의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 공유 범위는 주로 공·사 건강보험 관련 과거 의료·보험 데이터, 의약품 등 목록, 보험 가입·보험금 청구 데이터, 공적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료기관·약국의 의료비 지급·정산 데이터 등을 포함함
- 이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는 공·사 건강보험의 과거 의료·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적 건강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공적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의료서비스와 의료기관·약국 목록을 활용해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와 수준을 보완하는 연계형 사적 건강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음
 - 또한, 국가의료보장국과 민간 보험회사는 공·사 건강보험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불합리한 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식별·통제하고,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국가의료보장국과 민간 보험회사는 공적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료기관·약국의 의료비 지급 및 정산 데이터를 활용해 공적 및 사적 건강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플랫폼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향후 중국 사적 건강보험 시장은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 공유 사업을 통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³⁾
- 중국 사적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비의 지출 비중과 1인당 건강보험 보험밀도를 고려할 때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 공유가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기준, 중국 사적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비 지출 5.7조 위안 중 0.38조 위안(7%)만을 차지하며, 보험밀도는 2022년 기준 600위안으로 독일(2018년, 3,000~4,000위안)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중국 보험업계에는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회사가 효율적인 상품 설계, 비용 절감, 보상 수준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의료보장 수요를 충족할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편, 중국 국신증권은 공·사 건강보험 데이터 공유의 영향을 바탕으로 사적 건강보험 시장 규모가 2024년 10월 8,700억 위안에서 2028년 1.4조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3) 国信证券(2024. 12), “医保、商保数据互通点评”